

# 스트리트 패션을 근원으로 한 영 패션의 형성에 대한 연구

-A study on the formation of Youth's Fashion based on Street Fashion-

대원전문대학 의상디자인과  
교수 신혜영

## 目 次

I. 서 론	1. 그런지
II. 스트리트 패션의 출현 및 형성	2. 리믹스
1. 테디보이와 모즈	IV. 결 론
2. 힙피와 스크류드	참고문헌
3. 평 크	ABSTRACT
III. 현대의 스트리트 패션	

## I. 서 론

현대 패션은 매우 다양한 진원지를 갖는다. 과거의 패션은 파리의 소수 디자이너들에 의해서 커다란 영향을 받았으며, 이들이 패션의 전반적인 흐름을 지배했었다. 그래서 불과 5~6년 전만 하여도 일반적인 패션의 흐름을 이야기할 때 그 흐름의 근원이 파리의 소수의 창작자들이고, 이들이 색채, 소재, 스타일의 제안자들로 이해되었다. 그리고 이들로부터 시작된 패션이 전세계로 거리의 일반인들에게까지 전달되는 것이 패션 현상의 하나로 여겨졌다.

그러나 오늘날의 패션은 소수의 창작자들에게만 국한되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매우 다양한 곳에서 아이디어가 제공되어 하이패션으로 흐르

고 다시 대중화 되는데, 그 중의 하나가 바로 짧은 이<sup>1)</sup>들에 의해 거리에서 보이는 스타일들이다.<sup>2)</sup> 이 스트리트 패션은, 거리의 짧은이들 이른바 신세대라고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그들의 의상과 창작법에서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오고 이를 하이패션 디자이너들이 받아들여 상품화하고 다시 일반 대중에게로 돌아가는 일련의 패션의 흐름을 유발하고 있다.

그들의 힘은 매우 커서 둘체 앤 가바나(Dolce & Gabbana)와 지아니 베르사체(Gianni Versace)와 같은 디자이너들에게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그리고 이들의 영향은 디자이너들에게 끌나지 않고, 그 중요성이 인정되어 유수한 박물관의 기획 전에 초청되기도 하였다.<sup>3)</sup>

또한 해외의 유력한 패션 잡지<sup>4)</sup>와 신문기사에

1) 본 고에서 지칭하는 짧은이들은 10대 후반에서 20대 후반까지로 한정한다.

2) 본 고에서는 거리에서 보이는 이 스타일을 스트리트 패션이라고 정의한다.

3) 1994년 11월 11일에서 1995년 2월 9일까지 영국의 권위 있는 박물관 빅토리아 앤 알버트 뮤지엄(Victoria & Albert Museum)에서 스트리트 스타일(Street Style)전이 열렸다.

스트리트 스타일이 자주 언급되는 것들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라고 하겠다. 이러한 중요성은 여러분야에서 이미 인정하고 있고, 국내 유명 의류 브랜드들도 스트리트 패션에 관해서 정기적인 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점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다.<sup>5)</sup>

이러한 일들은 스트리트 패션의 진원지로서의 역할이 매우 크다는 것을 말해 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스트리트 패션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1990년대적 시각에서 과거의 스트리트 패션의 역사를 정리하고 그것의 중요성을 부각시켜 현대 패션의 이해를 돋자는 목적에서 이를 고찰하고자 한다.

스트리트 패션의 특징은, 아방가르드하고 파격적인 것이 많으며, 때로는 과거의 것을 받아들여 새롭게 소화해 내기도 하는데, 이 경우에도 자기 나름대로의 새로운 방식을 적용하여 매우 신선한 감각을 나타내는 특징을 갖는다.

1990년대에 들어와 나타나는 수많은 스트리트 패션 중에서도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의 청소년들이 창조해 내는 요즈음의 패션은 특히 주목할 만하다. 현실에 대한 냉소와 실용주의적 가치관이 빛어낸 그런지(Grunge)패션, 테디보이 스타일(Teddyboy style)의 재현이나 평크의 리바이벌, 사이버 평크 현상, 마치 1950, 60, 70년대의 패션을 연상하게 하는 90년대식의 리믹스 스타일(Remix style)<sup>6)</sup>이 나타나고 있는 점은 특히 주목할 만하다.

리믹스 스타일은 매우 재미있는 현상으로 현재 10대들의 부모가 바로 1950년에서 70년대를 경험한 세대들이며, 젊은이들은 그들의 부모 세대가 착용했던 것과 같은 패션에 감화되어 그 시대를

반복하고 있다. 현대의 시대적 배경은 물론 그 당시와는 다르지만 10대들이 1960년대나 1970년대의 하위문화(sub culture)에 관심이 있는 것은 사실이며, 이것이 패션에 반영되고 있다.

본 연구의 스트리트 패션의 출현 및 형성에 관한 고찰 부분에서는 1990년대 중반이 되면서 더욱 강하게 나타나는 스트리트 패션의 배경이 되는 과거의 패션 중에서 1990년대 전반의 패션에 영향을 많이 주고 있는 1950년대, 1960년대 그리고 1970년대로 한정하여 살펴보았다. 그리고 현대의 스트리트 패션 부분에서는 1990년대 전반기의 현상을 살펴보는 순서로 본 주제를 고찰하였다.

## II. 스트리트 패션의 출현 및 형성

### 1. 테디보이와 모즈(Teddy boys & Mods)

1950년대의 우리나라는 전쟁과 가난으로 인하여 혼란한 상황의 연속이었다. 그러나 미국과 유럽의 패션 선진국들은 2차 대전의 상처를 치유하고 대중, 대량 문화, 플라스틱과 같은 모조 문화의 전성기로 나타나는 소비문화의 시기로서, 급격한 변화가 정치 체계를 훔쳤었던 시기이다.<sup>7)</sup>

이 시대 젊은이들은 패션의 귀족이 된 최초의 남자들의 집단인 테디 보이(Teddy boys)와 영원한 현재를 사는 젊은이들이라고 할 수 있는 모즈(Mods)를 통해 고찰할 수 있다.

테디 보이는 젊은이들의 하위문화를 반영한 스트리트 패션의 선구자로서의 의미를 갖고 있어 패션 사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띠고 있다. 모즈는 특히 음악과 깊은 연관이 있음을 보여 준 스트리트

4) Vogue Italy, N. 528, 1994, P.116~121. 오늘날 가장 많은 화제 거리가 되는 의복 분야에 있어서의 현상 스트리트는 말한다. (IL FENOMENO DI COSTUME DGGI PIU CHIACCERATO STREET TALK)

5) 삼성패션연구소에서는 월 1회, 제일모직은 계절별 1회를 실시하며 이외의 업체들도 많은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6) 포스트 모던적인 패션의 한 양상에 사용된 용어로 과거의 것을 복고적인 스타일로 받아들여 현대화시키되 다양한 스타일과 합쳐진 것을 지칭한다.

7) Christopher Pearce, [Fifties source book], Chartwell Book inc., 1990

패션으로서 의미가 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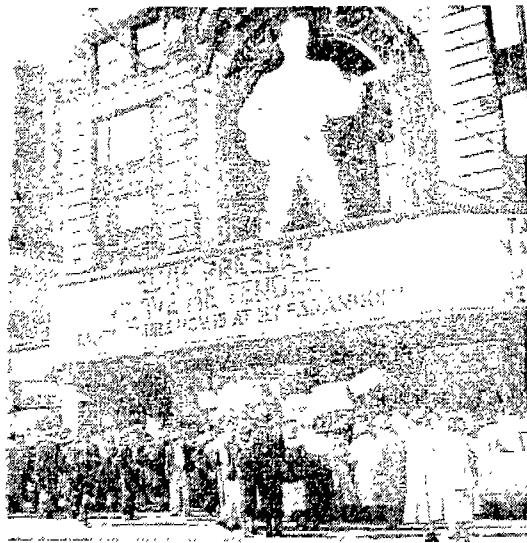
이 1950년대의 테디 보이와 모즈 패션과 같은 영 컬처(young culture)의 출발점은 1950년대 중반 그렌포드 주연의 폭력 교실에 사용된 음악, 빌 헤이리의 락 어라운드 더 락(Rock around the rock)이 강렬한 충격을 주면서 스크린에 등장했을 때로 부터라고 할 수 있다. 이 영화는 젊은이들에게 커다란 충격을 주었으며, 특히 여기에 사용된 신종의 음악, 그것도 10대들을 위한 음악은 락 앤 롤(Rock & Roll Music)이었다.<sup>8)</sup>

그리고 이 락 앤 롤 뮤직을 보다 폭발적 봄으로 만든 가수가 바로 엘비스 프레슬리였다.

엘비스 프레슬리는 젊은이들의 하위문화(sub culture)의 상징으로 가스펠, 블루스, 리듬 앤 블루스, 힐비리, 부기, 웨스턴 등 다양한 장르의 감각을 갖고 있었고, 특히 로커빌리(Rockabilly) 리듬이 열광적인 재즈음악에 탁월한 재능을 갖고 있었다.

엘비스 프레슬리는 패션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쳤으며〈그림 1〉, 블랙 칼라를 사용한 패션을 즐겼다. 그의 포마드를 바른 헤어스타일은 혹인들이 꼽슬머리를 폐기 위해 사용한 포마드(pomade)를 모방한 것이며, 이것이 후에 로커빌리 컷(rokabilly cut)의 기본이 되었다. 의상은 빛 바랜 청바지와 칼라를 세워 입는 셔츠 스타일을 좋아했고, 의복의 색은 혹인들의 애호 색상인 블랙, 평크, 레드, 퍼플, 화이트와 같은 강렬한 이미지의 색을 즐겨 착용하였다.

이 로커빌리 스타일과 음악이 청소년 하위문화의 힘으로 엘비스 프레슬리를 스타로 만들었으며, 특히 모즈 문화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대중 스타인 엘비스의 패션은 소년들은 물론이고 모즈소녀들에게도 많은 영향을 미쳐서 엘비스의 바렌 힙스터 청바지와 셔츠를 모방하여 착용하면서 유니섹스(unisex)차림새를 출현 시켰다.



〈그림 1〉 Elvis의 골연장 입구 (Sixties Source Book)

1950년대 후반에는 비밥 재즈(bebop jazz)도 젊은이들의 하위문화에 크게 영향을 주었다. 혹인들의 소박한 블루스 풍의 재즈와 그들의 스타일이 지브 아이비 재즈(jive ivy jazz), 혹은 컨템퍼러리 아이비 스타일(Contemporary ivy style)로 많은 젊은이들에게 영향을 주었다.<sup>9)</sup>

비밥 재즈와 모던 재즈는 한가지 장르가 아니라 매우 죽 넓은 음악적 요소를 포함하여 그 심연에서 나오는 심오함을 갖고 급속히 현대 젊은이들에게까지 유행되고 있다. 이 음악은 현대의 다른 음악들과는 달리 북고등의 아날로그 레코드로 들는 것이 세련된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테디 보이는 모즈보다 시대적으로 약간 앞선 1950년대 중반에 나타난 패션 현상으로 엄격한 영국의 계급제도에 대응하는 젊은이들로 세 2차 세계대전 이후의 대표적인 영 패션을 창출하였다.

테디 보이들은 기성의 엘티트 층과 상류층에 대

8) Music screen에서 고찰하는 Fashion movement, Fashion Forum, V. 17, 1994, pp.21~24

9) Music screen에서 고찰하는 Fashion movement, Fashion Forum, V. 17, 1994, pp.21~24

한 불만 및 미래에 대한 불안과 초조, 좌절을 느끼고 이에 대한 심리적 위축을 해소하고자, 19세기 에드워디안 시대의 의복과 풍습을 수용하여 새로운 스타일을 출현 시켰다. 이들은 남성이 외모나 의복에 무관심하다고 생각하는 일반적인 관념을 깨뜨린 집단으로 에드워드 왕조 풍으로 한껏 멋을 냈다.<sup>10)</sup> 벨벳을 댄 칼라, 장식적인 베스트, 가느다란 타이 등 전체적으로 호리호리하게 허리를 부각시킨 실루엣에 모카신을 신었다. 산뜻하고 깔끔한 의복에 앞머리는 길고 뒷부분이 짧은 DA(Ducks Ass)컷을 하였다. <그림 2>



<그림 2> 런던, Teddy Boy, 1954 (Fashion Source Book)

이들은 폭력과 난폭한 언행을 행사하거나 예술파괴행위(Vandalism)를 수행하기도 하면서, 음악과 섹스가 결합된 청소년들의 하위문화를 표현하였다.

이러한 테디 보이 스타일은 대단히 현대적이어서 40년이 지난 지금에도 그 신선힘을 잊지 않고 있다. 이 스타일은 패션 아이덴티티(Identity)에 눈뜬 젊은이들의 첫번 째 스타일이며, 미래지향적이었던 젊은이들의 모습은 현대의 패션에까지 계속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테디 보이와 모즈가 나타난 1950년대는 청소년들의 하위문화가 등장한 새로운 시대이며 스트리트 패션의 창조기로서 락과 재즈는 미국을 비롯하여 전세계 청소년들에게 영향을 미쳤으며 이후 계속해서 현대의 젊은이들에게까지도 지속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 2. 히피와 스키니헤드(Hippies & Skinhead)

1960년대 미국은 민주당의 케네디와 존슨 대통령의 시기로 표면적으로는 ‘내가 남보다 낮지 않고 아무도 특별하게 드러나서는 안된다’라는 민주주의가 선망의 대상이 되었던 시기이다.<sup>11)</sup> 또한 문화적으로는 매우 젊은 시대이며 경제적으로도 비교적 윤택한 시기였다. 그러나 이 시기에도 어느 시대에나 있듯이 부의 편재가 심하게 나타났으며, 특히 민주주의 운동으로 폭력적 분위기가 고조되어 흑인폭동이 다수 발생하였고 월남전으로 인한 소모가 상당히 많았다.<sup>12)</sup> 이러한 분위기는 젊은이들의 반항 정신을 깊이 자극하였으며 이것이 신좌파와 히피를 만들어내는 계기가 되었다. <그림 3>

히피와 같은 청소년들의 하위문화는 미국과 영국이 주도하였으며, 전 세계에 영향을 주었고, 1960년대 전반에 걸쳐 매우 다양한 음악과 패션이 나타났다.<sup>13)</sup>

10) 김민자, 2차 세계대전 후 영국 청소년 하위문화 스타일-Teddy boys, Mods, Hippies, Skinhead와 Punk Style의 상징성에 대하여, 한국의류학회지, V.11, 1987

11) IL FENOMENO DI COSTUME DGGI PIU CHIACCHIERATO STREET TALK, Vogue Italy, N. 528, 1994, pp.116~121

12) 이주영, [미국사], 대한교과서주식회사, 1887.

13) M. Brake, Youth culture, Rouledge & Kegan paul, 1985.



〈그림 3〉 1960년대의 반전 캠페인 ('50s & '60s Style)

1960년대 젊은이들은 그들의 패션을 비롯한 전반적인 문화에 영국의 수퍼 그룹 비틀즈로부터 상당한 영향을 받았다. 비틀즈는 리버풀에서 시작하여 순식간에 전 세계 청소년들의 우상이 되었는데, 이들은 매우 세련된 음악과 패션을 연출하였다. 비틀즈는 전 세계 젊은이들에게 음악의 영향뿐만 아니라 의식 혁명을 일으켜 사고방식과 행동 양식에도 절대적인 영향을 끼쳤는데, 그들의 장발은 락의 상징이 되었다. 그뿐만 아니라 비틀즈가 연출하는 문화는 그대로 청소년들에게 반영되었으며, 이들은 히피 스타일의 전파에도 커다란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그림4〉



〈그림 4〉 히피 스타일의 복식을 착용한 비틀즈, 1967년 (Fashion Source Book)

히피는 1960년대 식의 스트리트 스타일이라 할 수 있다. 이들은 기성 사회의 관습에 반발하여 나타난 집단으로 사회적인 혼란과 전쟁에 대항하는 반전 운동, 자연으로의 회귀, 극단적인 사이키델릭(Psychedelic), LSD와 같은 환각제, 동양적인 신비의 세계, 우드 스톡의 락 콘서트(그림 5) 등으로 대변되는 문화였다. 이들은 1960년대에 시작되어 1970년대 전반까지 그 힘을 발휘하였으며, 현대 패션에도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



〈그림 5〉 우드스톡의 락 콘서트 (Fashion Source Book)

히피들의 헤어스타일은 기성세대에 대한 반항의 상징으로 긴 머리를 늘어뜨렸는데,<sup>14)</sup> 근대 이래 남성의 머리가 길어진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었으며, 패션 역사의 커다란 변혁이라 할 수 있다. 히피의 패션은 홀치기 염색(tie dye)이나 아플리케

14) 서유리, American hippie와 그 복식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 학위 논문, 1993.

와 같이 손으로 만드는 수공예(hand-craft)감각의 친즈나 티셔츠로 대변되며,<sup>15)</sup> 검소하고 자연주의적인 문화 유행(culture movement)을 탄생시켰다. 히피는 의복에 대한 완전히 새로운 개념을 부여하여 유행의 상향 전파설을 보여 주는 예가 되었다. 따라서 히피 패션은 이전까지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패션의 흐름을 완전히 역전시켜 스트리트에서 하이패션으로 파급되는 상향 전파 양상을 선명하게 드러내었다. 그 결과 오트 쿠튀르에 에스닉(Ethnic)이나 사이키델릭(psychedelic) 패션을 도입시켰고,<sup>16)</sup> 유니섹스룩과 레이어드룩은 캘빈 클라인(Calvin Klein), 글로리아(Gloria), 입생 로랑(YSL) 등의 컬렉션에 등장하였다.

풍속 문화의 대립, 문화가 시작된 1960년대 젊은이들의 하위문화는 히피(Hippies)와 함께 스킨헤드(Skinhead)를 들 수 있다.

영국에서 시작된 스킨헤드는 옳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회의 폐잔자라는 의미를 상징하는 집단으로, 짧게 깎은 머리 때문에 스킨헤드라는 이름이 붙여졌다. 이들은 주로 무산 계층의 자녀들로 학교로부터 소외당한, 사회의 저변에서 나타난 계급으로 인종 주의에 관심이 많았으며, 폭력과 난폭한 언행의 사용으로 남성적 이미지를 강조하였다. 동성 관계(Homology)도 이 집단의 한 양상이었다. 이들의 패션은 닥터 마린 부츠를 신고 체크 무늬 셔츠에 블루 종 스타일의 재킷을 즐겨 입었다.<sup>17)</sup>

스킨헤드는 1960년대 말에 시작되어 1971년경에 사라졌다가 1978년경 폭크 스타일과 함께 다시 나타나기 시작하였으며,<sup>18)</sup> 이들의 헤어스타일은 현재까지도 미술계 학생이나 연예인에게서 종종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들이 사용한 문신류는 1990

년대 중반에 와서 문신 스티커가 나올 정도로 각광 받고 있다.



〈그림 6〉 The New York Dolls  
(Fashion of a Decade the 1970s)

### 3. 폭크(Punk)

1970년대는 두 차례의 오일 쇼크와 달려 쇼크 그리고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경제적 불황기로 사회적으로 불안심리가 많이 작용하던 시기이다. 특히 1973년의 세계적인 유류파동으로 인하여, 1960년대의 소비는 미덕인 시대에서 절약이 미덕인 시대가 되어 좀 더 실제적이고 합리적이며 다목적인 것에 관심을 갖게 된 시기이다.

이러한 시대적 영향은 기존의 전통과 관념이 거부되었고 위협받는 과정을 거치면서, 패션에서도 지위 상징의 개념은 매우 희박해졌으며, 개성이 존중되었다. 즉 사람들은 자신들의 패션을 통해 개인적인 취향을 더욱 잘 표현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을 안은 1970년대의 젊은이들의 문화는 스트리트 패션으로는 가장 과격하다고 할 수 있는 폭크 패션을 출현 시켰다. 폭크는

15) Burman, B., *Fashion Revivals : from the Elizabethan age to the presentday*, Batsford, 1981.

16) Y. Connikie, *Fashion of a decade the 1960s*, Fact on file, 1990.

17) Clive d. Gifin, *Rock Music*, Dryad Press, 1987.

18) 김민자, 2차 세계대전 후 영국 청소년 하위문화 스타일 – Teddy boys, Mods, Hippies, Skinhead와 Punk스타일의 상징성에 대하여, 한국의류학회지, V.11, 1987.

영국에서 시작되어, 영국 젊은이들의 패션뿐만 아니라 삶에 대한 새로운 태도(altitude)를 제시하였다.

1970년대는 폭탄 테러와 폭동 소요로 영국은 전국이 어지러웠고 불황으로 실업자가 속출하였던 시기였으므로 청소년의 실업은 심각한 문제가 되었다. 이와 같이 미래를 약속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들만의 복장과 언어와 생활태도로 나타난 저항하는 문화가 바로 평크이며, 이것이 표현된 음악이 평크 음악이었다. 젊은이들의 분노의 에너지가 방출되어 그들의 마음을 담아 non future, hate & war 등의 가사를 담아 노래하였다. 이러한 평크 음악과 평크패션은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으며, 영국은 스트리트 패션의 중심지로서 큰 관심을 집중시켰다. 이 평크패션과 음악의 유행은 말콤 맥레인(Malcolm Mclane)과 비비안 웨스트우드(Vivienne Westwood)의 공이 매우 큰데, 그들이 연출한 그룹 섹스 피스톨즈(Sex Pistols)는 평크 문화의 선도자가 되었다. 섹스 피스톨즈는 대표적인 평크음악가들로 비비안 웨스트우드의 섹스상점의 의복을 착용하였다. 당시 섹스 피스톨즈의 인기는 매스컴을 열광시켰다.<sup>19)</sup>

평크 정신은 기존 사회와 정치에 대한 혁명과도 같은 것이었으며, 이와 같은 반 정치적이고 반 체제적인 사상은 1970년대 전체를 통하여 매우 큰 흐름을 보여 주었다.

평크 패션은 락 밴드의 무대의상에서부터 시작되었는데, 고의로 추하게 조작하여 괴기스러운 복장을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이는 아름다운 복식이라는 기준의 미의식에 대한 전면적인 부정으로 패션의 주류에서 벗어난 패션이었다. 다양한 색으로

머리카락을 염색하거나 마구 세워 올려 부풀린 헤어 스타일에 검은 색을 주조로 하여 드라큐라를 연상시키는 메이크업은 평크패션에서 주로 볼 수 있는 모습이었다. <그림7>의 상은 부조화 되는 색상을 사용하여 구멍을 뚫거나 패치워크를 하기도 하였고, 지퍼, 권, 면도날 등의 악세사리로 장식한 저속한 디자인이 대부분이었다.<sup>20)</sup>



<그림 7> Punk, 1976년 (Fashion Source Book)

패션도 다른 스트리트 패션들처럼 하이패션에 영향을 미쳐서 1970년대 후반의 다카다 겐조(Dakada Kenzo)의 해적풍 룩, 이세이 미야케(Issey Miyake)의 보헤미안 룩 및 잔드라 로즈(Zandra Rhodes), 오지 야마모토(Yohji Yamamoto), 콤드 데 가르송(Comme des Garcons) 등의 컬렉션에 등장하였다.

평크가 1990년대까지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다른 종류의 패션들과 미스 매치(miss match)<sup>21)</sup> 할 수 있다는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

19) [Mablen Jones, Ellen colon-logo, 1987.]에 의하면, 이를 외에도 3코드를 기본으로 갑각적 소음을 호전적으로 두드리는 형태의 분노, 니힐리즘(Nihilism), 이질성이 가득찬 가사로 초기의 정조 레온, 엘씨 화이브(MC5), 이지 팝(Iggy pop), 스투지스(The stooges), 언더 그라운드(Under ground), 뉴욕 볼스(The New York Dolls)<그림 6>, 패티 스미스(Patti Smith)등에 의하여 전개되었다.

20) 엄소희, 평크패션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산업미술대학원 석사 학위 논문 1988.

21) 지금까지의 감각에 맞지 않는 코디네이트로 새로운 현대적인 조화가 표출되는 것. 일구려 살피워 것 같은 새로운 조합의 테크닉.

다. 이상야릇한 색상으로 머리를 물들이거나 혹은 코에 옷 핀을 꽂는 것 이상으로 사실상 그들은 예상치 않은 무언가를 조화시키려는 경향을 갖고 있었다. 그리고 평크는 오늘날까지 존재하는 어떠한 젊은이들의 운동에 위하여 실행되었던 것 보다 가장 패셔너블하고 극단적이며 영웅적인 영향력을 패션 분야에 행사하고 있다.

### III. 현대의 스트리트 패션

1990년대는 정치적으로는 동서 이데올로기의 붕괴로 전 세계가 자유민주주의화 되고, 사회경제적으로는 인터넷과 같은 획기적인 통신과 컴퓨터의 발달로 세계를 지구촌화 하였다. 그러나 세기 말의 극적인 상황 속에서 기아, 폭력, 도덕적 부패, 실업, 에이즈 등의 재앙과 불행이 공존하는 시대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젊은이들은 제도화된 기성 사회에 강한 반발을 하고 있다.

이러한 복잡한 상황 속의 1990년대 전반에는 시대를 반영하여 매우 다양한 스트리트 패션이 나타났다.

그 중에서도 과거의 다양한 하위문화의 영향으로 나타난 그런지 패션, 테디 보이의 리바이벌, 평크의 재등장과 같은 1950년대, 1960년대, 1970년대의 리믹스 스타일의 대두는 매우 중요한 현상이다. 따라서 1990년대 스트리트 패션은 그런지 스타일과 리믹스 스타일로 구분하여 고찰될 수 있다.

#### 1. 그런지(Grunge)

그런지 패션은 1990년대 전반에 나타나 획기적인 역할을 한 패션 현상으로 젊은이들의 대명사가 된 X세대들로부터 시작된 스트리트 패션이다.

현대의 베이비 버스트(baby bust)<sup>22)</sup> 세대는 그

들 부모 세대와는 달리 경제 불황과 높은 실업률 속에서 능력에 비하여 열등한 직업에 종사하면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안고 있다. X세대라고 하는 이 세대는 자신들의 암울한 현실을 베이비 봄 세대의 탓으로 보고 이들에 대한 적대감을 그런지라는 새로운 문화로 표출하였다.

그러므로 이들은 뭐든 더럽고 혐오감을 주는 저분한 것(Anything dirty, distasteful, squalid)을 패션에 받아들였다. 현실에 대해 냉소적이고 실용적인 가치관이 넓은 그들의 문화는 1960년대 히피문화에서처럼, 그들의 웃차림에서도 히피패션을 부활시켰다.<sup>23)</sup>

그런지의 특성은 여러 가지 아이템들을 다양하게 중복(layering)시킨 것이 특징이다. 재활용(recycling)이나 자연에의 회귀 현상의 영향으로 대두되는 패치워크, 이질적인 소재의 믹스 앤 매치(mix & match), 프린트 물을 변화 있게 대비시킨 스타일 등이 구체적인 특성이라 할 수 있다. 스트리트에서 시작된 패션인 그런지가 하이패션에 수용되기 시작 한 것은 벨기에의 드리스 반 노튼(Dris Van Noten), 마틴 마지엘라(Martin Magiela)와 같은 일련의 신예 디자이너들에 의해 서였다. 그 후 그런지 패션은 1993년 춘하 시즌에 미국의 디자이너들이 중심이 되어 컬렉션에 도입되었고, 전세계에 급속도로 확산되었다.

하이패션에서는 페리 엘리스(Perry Ellis)의 컬렉션 작품, 지아니 베르사체와 돌체 앤 가바나의 1970년대 풍의 패치워크〈그림8〉, 미카엘 코스(Michael Kors), 캘빈 클라인, 조지 알마니(George Armani)의 바지 위의 스커트 그리고 조끼, 그리고 다시 그 위에 재킷과 같이 착장순서를 무시하는 레이어링 패션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스트리트의 젊은이들의 반 패션에서 출발하여 하나의 독특한 스타일로 발전한 것이다.

22) 베이비 버스트란 출생률의 급 저하를 의미함.

23) Whats Modern Now?, Vogue, 1993, 1. p.95.



〈그림 8〉 Dolce & Gabbana의 Grunge style ('94~'95 Autumn & Winter Men's Collection, vol. 20)

킷은 드레이프 재킷(drape jacket)으로 불리우는 벨벳 칼라에 무릎 길이의 긴 재킷이 착용 되었고 〈그림 9〉, 여기에 바지는 드레인파이프 팬츠(drainpipe pants)가 착용 되었다. 목 주위는 나비 매듭의 부츠레이스 타이(bootlace tie)로 장식하며 신발은 클리퍼(clipper)로 불리는 러버 솔 슈즈(rubber sole shoes)를 착용하는 등 전형적인 테디 보이 스타일을 재현시키고 있다. 이들은 모해어 스웨터나 실버 팬츠와 같은 평크 아이템과 코디네이트하여 1990년대 스타일로 재해석되고 있다. 이 스타일은 하이패션 디자인에도 영향을 주어서 캐더린 햄넷(Katherine Hamnet) 같은 디자이너는 칼라에 벨벳을 사용한 타탄체크의 롱 재킷, 그리고 이와 같은 소재의 러버 솔 슈즈를 디자인하여 각광을 받았다.<sup>24)</sup>

## 2. 리믹스(Remix)

1990년대 패션의 두 번째 특징인 리믹스 스타일은 1990년대 중반에 접어들면서 나타나는 중요한 스트리트 패션이다. 혼합되고 결합되는 내용은 1950년대의 테디 보이 스타일, 평크, X세대라고 하는 젊은이들의 고유의 감성 등이다. 이는 패션에 나타난 포스트 모던의 한 양상으로도 볼 수 있는데, 과거의 것을 복고풍이란 이름으로 받아들여 현대적 감성으로 재해석하는 일련의 방식이다.

다양한 리믹스 스타일 중, '94/95 추동패션에서 영국, 일본 등을 중심으로 젊은이들에게 새롭게 대두된 리바이벌 패션은 1950년대 테디 보이 스타일이다.

이 테디 보이 스타일은 1994년 가을을 기점으로 하여 예상외의 트랜드로 나타났었는데 특히 남성복에서 많이 보여졌다. 헤어스타일은 앞머리에 크게 컬을 주고 옆 머리는 뒤로 날리며 뒷머리를 짧게 자른 DA(Ducks ass) 스타일이 재현되었다. 재



〈그림 9〉 Teddy Boy style의 Remix style  
(Interview, 1994. 7.)

테디 보이의 본고장인 영국에서도 1990년대 테디 보이가 주력 아이템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하이테크 테디 보이(High-tech Teddyboy) 등과 같은 패션 테마로 나타나고 있다. 존 케이슬리 헤이포드 디자인의 꽁택 있는 소재의 드레이프 재킷과

24) 秋の大穴 50年代を新く着ふ テディボーイルシク 織研新聞, 1994. 9. 1. 4면

웃단을 크게 접는 드레인파이프 친즈 등도 이러한 경향의 한 영향으로 출현된 실례들이다.

또한 1970년대 평크도 리믹스 패션의 트랜드에 합류하고 있다. <그림10>



<그림 10> Jean-Paul Gaultier의 Remix Style  
(1995 Spring & Summer Men's Collection,  
vol. 23)

평크 패션의 아이템으로는 저지 스트라이프가 사용된 스커트나 팬츠, 티셔츠 등이 있으며, 이들은 다양한 방법의 룩, 소프트 평크 등으로 표현되고 있다. 이들은 패션 트랜드로 발표되기 이전에 이미 스트리트에서 짚은 이를 사이에 나타났던 스타일들이다. 이는 스트리트 패션의 파워가 점점 활발해지는 것을 증명하는 것으로 요즈음의 히트 아이템이 대부분 스트리트에서 나온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다.<sup>25) · 26)</sup>

1990년대는 다양한 문화의 혼합(culture mix)으로 새로운 문화를 창조해 내는 시대이며, 이러한 경향은 패션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스트리트 패션에서 각광 받고 있는 스타일 역시 1960~70년대를 리믹스하는 패션들이다.

#### IV. 결 론

패션 현상은 과거에는 하이패션 디자이너들에 의해서 시작되어 대중들에게 전파되어 갔으나, 현대의 패션은 스트리트의 짚은 이를로부터 시작되어 하이패션이 영향을 주는 경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특히 1990년대가 되면서 이러한 현상은 급증하였으며 1990년대 중반에 접어들면서 정점을 이루고 있다. 그 예로 1990년대 초반의 그런지와 중반이 되면서 나타났던 리믹스 스타일을 들 수 있다.

그런지는 암울한 현실 속에서 기성세대에 적대감을 가진 X세대에 의해서 시작된 패션 현상으로, 여러 가지 의복 아이템들을 다양하게 레이어링 시킨 것이 특징이며 패치워크나 빙스 앤 매치의 기법으로 나타난다. 이들의 시작은 스트리트 청소년들이었으나 일반 대중은 물론 하이패션 디자이너들에게도 상향 전파되어 지대한 영향을 미쳤고, 1990년대 전반의 가장 획기적인 패션의 하나로 부각되었다.

또한 리믹스 패션은 1990년대 중반에 새롭게 대두되기 시작한 패션으로, 1950~70년대의 테디 보이, 히피, 평크와 같은 청소년 하위문화에서 나타난 다양한 스타일들의 1990년대적인 감성을 가미시켜 새로운 스타일로 출현된 것이다. 이들도 스트리트에서 시작되어 '94 / 95 추동컬렉션의 하이패션 디자이너들에게 영향을 주었다.

스트리트 패션의 영향력이 점점 더 커지고 있어서, 일반대중은 물론이고 하이패션의 디자이너들에게도 영향이 매우 크므로 스트리트 패션의 향후의 전개 방향을 살펴보는 것은 패션의 흐름을 예전 한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 이 스트리트 패션이 1995년을 정점으로하여 많은 변화가 있고 있는데, 크게는 두 가지의 방향이 부각될 것이다.

25) 秋冬 フマツショントレンチエツワ, 織研新聞, 1994. 9. 1. 4면

26) 勢いよくストリート フマツション, 織研新聞, 1994. 9. 1. 15면

먼저 어떤 패션 현상이 극에 달하면 반대 방향으로 흐르는 패션의 원리에 의하여 그런지 패션에 대한 반작용으로 단순하고 신뜻하며 우아함을 재발견하려는 욕구가 반영되어 새로운 패미닌한 스타일로 변화할 것이다. 이것은 과거에의 회귀현상 중에서도 1950년대나 1960년대의 유명 디자이너나 영화배우의 의상에 영향을 받아 아름다운 스타일로 변화하는 양상으로 그런지의 스타일과는 상당히 다른 시각으로 출발하는 패션이 될 것이다.

두번째로의 경향은 퍼스널 컴퓨터의 보급 및 인터넷 사용의 급증 등으로 1990년대 후반으로 접어들면서 나타나는 특별한 현상으로 가상현실세계를 표현하는 패션의 등장이다. 컴퓨터의 합성, 환상적인 테크노 사운드나 초 현실적 이미지의 미래파적인 스타일로 새로운 환상의 세계를 패션이 나타내 줄 것이다.

본 주제를 고찰 함으로서 스트리트 패션이 영 패션의 양식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살펴보았다. 패션리더들이 젊은이들에게 집중되어 있는 우리의 현실을 감안할 때 젊은이들이 표현해내는 스트리트 패션의 중요성은 하이패션의 유명 디자이너의 컬렉션의 연구와 마찬가지로 중요한 일이다.

스트리트 패션을 근원으로 한 영 패션 양식의 형성에 관한 연구는, 우리나라 현대 패션의 역사로서 영 패션을 정리한다는 학문적 가치 이외에도 패션관련업에 종사하는 실무자들을 위한 좋은 길잡이가 될 수 있다. 트랜드 기획자는 트랜드의 방향을 잡을 때 피상적인 해외 자료에만 의존하지 않고 한국 현실에 맞는 방향을 잡을 수 있을 것이고 디자이너 머천다이저 등의 상품 기획자는 기획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끝으로 스트리트 패션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인으로는 과거의 패션과 함께 당대의 인기있는 뮤지션(Musician)들의 역할도 매우 크므로 뮤지션과 영 패션의 관계에 관한 체계적인 고찰도 의미가 있는 일이므로 이에 관한 많은 연구가 있기를

제안해 본다.

### 참고문헌

- 1) IL FENOMENO DI COSTUME PIU CHIACCHIERATO STREET TALK, Vogue Italy, N.528, 1994, p.116~121.
- 2) Christopher Pearce, *Fifties source book*, Chartweel Book inc., 1990
- 3) Music screen에서 고찰하는 fashion movement, *Fashion Forum*, V.17, 1994, p.21~24.
- 4) 김민자, 2차 세계대전 후 영국 청소년 하위문화 스타일—Teddy boys, Mods, Hippies, Skin-head와 Punk 스타일의 상징성에 대하여, 한국 의류학회지, Vol.11, 1987.
- 5) 이주영, 미국사, 대한교과서주식회사, 1987.
- 6) M.Brake, *Youth culture*, Rouledge & Kegan Paul, 1985.
- 7) 서유리, American Hippie와 그 복식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 학위 논문, 1993.
- 8) Burman, B., *Fashion Revivals : from the Elizabethan age to the present day*, Batsford, 1981.
- 9) Y. Connikie, *Fashion of a decade the 1960s*, Fact on file, 1990.
- 10) Clive D. Griffin, *Rock Music*, Dryad Press, 1987.
- 11) Tribes of Britain, Time, 1983. 10. 24., p.55
- 12) Mablen Jones, *Ellen colon-lugo*, 1987
- 13) 엄소희, 평크패션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산업미술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88
- 14) Weekly Marketing Communication, 삼성물산, 제24호, 1994. 11. 26.
- 15) Whats Modern Now? Vogue, 1993. 1., p.95.
- 16) 秋の大穴 50年代を新く着ふ テディボーイルシク織研新聞, 1994. 9. 1. 4면

17. '94~95 秋冬 ファッショントレンド・エッセイ、  
織研新聞, 1994. 7. 25. 1면
18. 勢いづくりストリート ファッション, 織研新聞,  
1994. 7. 25. 15면

## ABSTRACT

### A study on the formation of Youth's Fashion Style based on Street Fashion

In today's fashion, Street is a birthplace of new generation fashion, and Street Fashion have frequently influenced on high fashion. From this view point, this study is a meaningful approach to forecast future fashion trend by examining the street style of youth who are regarded as Street Fashion leader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Youth Fashion style in early 1990s, and to provide a reference to fashion designer and mer-

chandiser in trend forecasting and product planning.

This study is focused on 1990s Youth Fashion style through the historical Street Fashion : 1950s Teddy boys & Mods, 1960s Hippies & Skinhead, and 1970s Punk.

There were mainly two popular Street Fashion phenomena in early 1990s.

One is Grunge fashion created by new generation in opposition to existing generation society and impacting on high fashion leaders.

The other is Remix style that is mixed ; sub culture fashion originated by young group in 1950~1970s with 1990s sensitivity.

Both fashion styles originated and led by youth of street have influenced on famous high fashion designers as well as the general public.

Street Fashion will continue to play an important role in future fashion, and more study and interest on Street Fashion should be taken by fashion forecaster and related.